세션 13, 신명기와 정경
Dr. Cynthia Parker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신명기와 정경입니다.

**소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미주가 될 마지막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신명기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율법의 끝과 이러한 언약 비준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될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추기에 좋은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의 주제**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주제를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을 준수한다면 그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환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을 세계 무대에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그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통해 오며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중 일부를 취하면 신명기가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일부 예언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와 역사적 내러티브**

 이제 우리는 역사, 신명기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Martin Noth라는 신사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신명기가 여호수아에서 시작하여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서의 서론 또는 서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역사 서사 전반에 걸쳐 많은 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신명기와 호세아**

 그런 식으로 신명기는 우리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른 책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글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일부를 언급하고 이 예언자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주제가 어떻게 결국 우리가 이미 배웠고 연구했으며 이 연구로 인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를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코 그의 사역이 소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그의 이름과 관련된 정말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예언자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나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십이사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을 모았거나, 호세아의 말을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가 태어난 도시는 없지만 그가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갈라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파견된 선지자의 일부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연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 2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실체적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세아 자신과 그가 가서 결혼하라는 부름을 받은 창녀 아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과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한 그의 끈질김은 그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따를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호세아에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는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쫓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를 도입하고 적응시킨 것에 대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호세아는 다른 신들을 위한 많은 성소와 다른 신들을 위한 많은 제단을 지은 것에 대해 북왕국을 매우 재빨리 질책합니다. 사람들과 섞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신명기에서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백성은 택한 곳에 하나의 제단을 두어야 하며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아야 그들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 .

 호세아도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망치질합니다. 헤세드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sed는 언약적 사랑과 관련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친절, 불편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랑의 유형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불편한 사랑.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헤세드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친숙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달되는 사랑의 유형을 헤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신성한 연민과 함께 남편과 아내 관계의 형태로 호세아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모범은 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의 역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첫 장에서조차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안고 인도하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와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다루지 않은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의 메아리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호세아의 노래에는 실제로 매우 가까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아모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호세아와 신명기 사이에는 아모스에서도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신명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선지자의 저서와 사역이 먼저 존재했고 신명기는 실제로 호세아와 아모스의 언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명기를 썼고 누가 실제로 그것을 기록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잡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북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신명기와 선택된 장소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택된 장소를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선택된 장소의 정확한 위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신명기는 이 선택된 장소가 어디에 있든 그 땅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한 곳, 한 신이 있고, 모두가 그 우산 아래 떨어진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신명기에 대한 주석을 읽으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기 때문에 선택한 장소는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석에서 선택된 장소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글쎄, 나는 그 주장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 언약을 비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앞 강의에서 막 이야기하고 신명기 11장 관련 강의에서 이야기한 언약이 북방 에발과 그리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땅의 북쪽 부분에 꽤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왕이 된 요시야 때까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시야 시대에는 그 땅의 북쪽이 크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땅의 북쪽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앗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신명기를 썼거나 실제로 단어를 완성하고 기록한 사람들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 또는 필사자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은 요시야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른 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북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쪽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며 신명기가 그 땅의 북쪽 영토를 무시하지 않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북쪽에서 온 호세아가 있습니다. 신명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글이 먼저 나와 신명기의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신명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문화되었고 일부는 연합 군주제 동안 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로 간주되었던 왕국의 초기 부분에서 논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차리도록 하자면, 호세아는 북부의 예언자로서 신명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와 아모스**

 그렇다면 아모스는? 아모스는 또한 호세아와 동시대에 있었지만 아모스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왔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바로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농부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북방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우리는 여러 다른 주제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되어 나왔고 우리에게 그 땅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반복되는 반복입니다 . 그것은 신명기에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주 오래된 주제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힘을 부당하게 자랑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9장의 작은 수학 공식을 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의로움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당신은 과거에 반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음, 아모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합니다. 음, 북 이스라엘 왕국이여, 당신은 부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중심에는 내가 아모스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 윤리입니다.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우리는 그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사회 윤리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꼭대기에, 아주 무거운 공물과 십일조가 공동체에서 뽑히는 꼭대기에 있도록 그들 자신을 구조화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극도로 부유한 생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것을 매우 강하게 책망합니다.

 글쎄요, 다시 신명기 이후에 우리는 15장과 19장과 25장에 흩어져 있는 몇몇 장에서 적절한 종류의 사회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우 다양한 법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모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와 의라는 생각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6장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또한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강의에서 방금 이야기한 "R" 단어인 회개, 복귀, 회복이 가능하다는 삼부작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Amos는 긍정적인 말로 끝맺습니다. 가능한 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일에서 돌이켜 당신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당신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와 미가**

 음, 아모스뿐만 아니라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Micah는 작은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미가는 유대 산기슭 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저지대 셰펠라 지역 출신입니다 . 그의 메시지는 주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은 남부 왕국에 있습니다.

 그의 큰 메시지 중 하나는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무력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 온 우상숭배와 형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우상숭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또한 신명기에서 다른 신들에 대한 강력한 금지뿐만 아니라 지도력 개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리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리더는 사람들의,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둥, 강한 기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왕이 최고 위에 세워진 리더십 체계가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는 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를 그의 형제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는 미가와 이사야에서도 그 주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인입니다. 따라서 남쪽 유다 왕국과도 이야기하고 주로 예루살렘에 편지를 썼던 이사야를 살펴보면 익숙한 주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신접한 자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와 미래의 점쟁이를 이용하므로 언약의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불의와 압제적인 법을 정죄합니다. 이사야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식적인 희생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방식으로 그 기억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므로 행동하라는 부르심은 주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또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와 더 비슷하다는 생각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29장과 30장에서 그 경고를 보았습니다. 저주의 하나인 이스라엘 땅이 유황과 소금, 그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며 그 의미의 일부가 그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의 억압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갈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같은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우리가 신명기의 끝에서 보는 회복에 대한 희망인 더 나은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강의에 나올 모세의 노래도 거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

 이제 위대한 선지자 중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와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과 설교를 기록할 무렵에는 적어도 신명기가 기록되거나 성문화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앞뒤로 여러 가지 다른 반성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7장은 언약이 참으로 어떻게 조건적인지에 대해 말하는 훌륭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동의한 이 언약이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끈질깁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그의 집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외출할 때 이 모든 계명을 어기고 어느 날 저녁에 성전에 가서 "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에 언약의 내적 표시가 있다는 생각을 꽤 자주 반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안식일의 휴식에 대해 꽤 많이 말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부분은 백성들이 안식과 땅 자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서에서 등장인물로 변한다. 그 땅은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지만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문구는 사실 오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에서 몇 번 봅니다. Deuteronomy는 이 문구를 좋아하고 그들이 들어갈 땅의 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꽤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문구를 볼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행에서 벗어납니다. 땅이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속기 표현으로 사용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젖과 꿀이 충만한 땅" 또는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2장도 모세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와 시편과 잠언**

 이제 우리는 시편과 잠언을 통해 갈 수 있고 그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유사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 잠언을 꿰뚫어 보면 잠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들은 현명한 말과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법전과 매우 유사하며 신명기 6장과 11장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물려주는 것은 개인의 책임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 가르침이 너희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이 계명에 있는 이 법규들이 당신의 지혜이며 충만한 인간 존재로 인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또한 자녀의 훈육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훈육의 개념은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기 수정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녀를 징계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라는 형태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신명기와 신약**

 신약성경도 신명기까지 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가 그것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4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언급한 이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십계명의 모든 하나하나를 지지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전체는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광야에서의 40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수가 유혹을 받을 때 그의 반응은 모두 신명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구현하고, 생각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그는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전 강의에서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18장이 약속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분은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와 바울**

 분명히 사랑과 계명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글에도 나타납니다. 또는 우리는 사도행전, 누가-행전,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글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지만 항상 사람들을 부르면 행동합니다. 종류. 우리는 로마서를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나가서 응답으로 선택하는 행동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신명기에 매우 정통했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구약성경의 대부분을 외웠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당시 랍비들의 구두 가르침을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의 인용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을 구성하기 위해 책의 구조까지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명기는 어디에나 있고 James Michener가 쓴 아주 최근의 현대 책이 있습니다. 내 말은, 최근이라는 말은 그것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벌써 몇 십년이 되었습니다. 책의 이름은 The Source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고고학자 중 한 명은 미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정말 유대인이고 미국인은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모여 역사를 파헤치고 역사의 층위를 폭로하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두 고고학자 사이의 정말 흥미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미국인은 이스라엘인에게로 향했고 왜 누군가가 신명기를 읽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이스라엘 고고학자인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에게 가서 신명기를 네 번 읽은 다음 돌아와서 이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가서 신명기를 네 번 읽고, 결국, 그것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는 다른 기록들, 역사적 기록들, 예언자들의 기록들, 그리고 신약의 기록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더 많이 읽고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신명기와 정경입니다.